



여수세계박람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밤 해상무대 빅오에서 개막식 리허설 중인 무용수들이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박람회 오늘 역사적 개막

104개국·10개 국제기구 참가 93일간 '꿈의 항해' ▶ 관련기사 2·3·8·12면

올 여름, 세계인의 가슴 속에 푸른 바닷길이 펼쳐진다. 실크로드가 고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한 것처럼, 여수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바다와 함께 살아 온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잇게 된다. 지구가 처한 환경과 기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예술적 상상력으로 세계를 감동시킬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이하 박람회)가 11일 전야제 겸 개막식을 열고 93일간에 걸친 '꿈의 항해'에 나선다.

10일 박람회 조직위는 "11일 오후 7시에 개막식을 연 뒤 12일 오전 8시 박람회장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에서 개막식을 갖고 일반 관람객들에게 박람회의 화려한 속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바다 위 전시관을 주제관, 해상 문화관 빅오(Big-O), 오통도까지 이어지는 그림 같은 행사장에서 펼쳐진다. 104개국이 참가하고, UN 등 10개의 국제기구가 참

가하는 등 전 세계의 관심도 여수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전시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기술 중심의 기존 박람회와 달리 관람객의 체험과 소통을 강조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최첨단 IT 기술도 접목됐다. 세계 각국과 삼성·현대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선보이는 첨단 기술이 전시되며, 우리를 더욱 중요하게 해줄 미래 해양 기술도 모습을 드러낸다.

또 특화시설인 빅오, 엑스포디지털 갤러리, 스카이라워, 아쿠아리움을 비롯해 73개의 참여전시관(주최국전시관·참여전시관 등), 3개 체험시설(에너지파크·원양어업체험장·연안어업체험장)에서는 관람객을 사로잡는 이색 전시가 계속된다.

축구장 200배 크기의 해양 무대 빅오에서는 매일 밤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보석 같은 다도해의 모습

을 본 떠 지은 국제관에서도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바다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신비로운 바닷속 체험도 선사하며, 폐막에 즈음해 발표되는 '여수선언'을 통해 인류가 바다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지침도 마련하게 된다. 전시 기간 중 박람회장 일대에서는 남해안의 아름다운 초여름을 배경으로 총 8000여 회의 문화공연이 열려, 여수 밤을 수놓게 된다.

조직위에 따르면 최대 10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돼 생산유발 효과가 12조2000억원, 부가가치 5조7000억원, 고용창출 8만명의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 여수가 세계 해양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여수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석 조직위 위원장은 "여수세

계박람회라는 '희망의 배'가 드디어 항해의 시작을 알리는 환한 빛고동을 울리게 됐다"면서 "이 배가 '꿈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람객이 여수를 찾아 행복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엑스포 날씨

11(금)	12(토)	13(일)
구름많음 14/17	구름조금 13/18	구름 많고 비 16/20

노약자·장애인 예약 배려 시스템 개선

여수세계박람회의 '전시관 예약제'가 노약자·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일자 1면)과 관련 박람회 조직위가 이들을 위한 전용 예약 체계를 만드는 등 개선을 약속했다. 조직위는 10일 "장애·노약자들이 쉽게 전시관 예약을 할 수 있는 전용 예약기기 8대와 안내요원을 배치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람회장 정문과 1문~3문에 8대의 전시관 예약을 할 수 있는 미디어키오스크가 설치되고 안내요

원들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조직위는 또 수화어행담 등 단체 관람객들이 쉽게 전시관 예약을 하도록 종합안내소 3곳을 설치해, 20인 이상 단체 예약을 안내요원이 도와주는 '단체예약 전용 데스크'도 설치했다.

또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단축시켜 오후 6시에 마감하고, 오후 9시까지의 자유롭게 줄을 서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옛 스승 편지 한통에 5000만원 모금 살레시오고 총동문회 남수단에 학교 짓는다

광주 살레시오 총동문회가 영화 '올지마 톤츠'로 잘 알려진 아프리카 남수단에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짓는다. 살레시오 동문이 아프리카에 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은, 수십년 전 자신들을 가르쳤던 스승의 절실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8면>

현재 남수단에서 빈민층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원선오 신부(Vincenzo Donati·84)는 지난해 7월 살레시오 21회 졸업생들에게 1통의 편지를 보냈다. 아프리카 최빈국 남수단의 교육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설립기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도움을 주면 제자들을 보러 한국을 찾겠다는 내용도 함께 쓰여 있었다. 국내외에서 '살아있는 성자'로 불리는 원 신부는 지난 1962년부터 19년간 살레시오고교에 재직하며 제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은 원 신부를 그리워하던 제자들은 지난 2월 총동문회에 이 사실을 알렸다. 소문이 퍼지면서 수백명의 동문이 순식간에 1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5000만원을 모았다.

원 신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는 19일 광주를 찾는다. 스승과 제자가 15년 만에 해후한 자리에서 졸업생들은 스승에게 '박찬 사랑과 존경이 담긴'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임승진(15회) 살레시오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기금을 전달하면 남수단에 살레시오의 이름을 딴 학교가 세워진다"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총동문회 차원에서 스승의 뜻을 이어받고 싶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李대통령 을 5·18 기념식도 불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치러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을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박지연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약실천특위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불참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왜 5·18 기념식에 불참하는지 참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주 4·3위령제 등 모든 우리나라 불행한 역사의 복권된 행사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민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올해 5·18 기념식에 불참할 경우 취임 첫 해를 제외하고는 4년 연속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지 않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고 노무

현 전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는 대조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측근비리 등 모든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검찰의 명예가 국민 앞에 실추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상조사·국정조사·청문회·특검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남악신도시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www.namakjeil.co.kr

5월 11일, 남악신도시 프리미엄이 완성된다

남악신도시의 오늘과 오후자의 내일이 만나 더 높아진 남악신도시의 마지막 프리미엄 제일풍경채 리버파크가 그 처음이자 마지막 기차가 됩니다

원더풀 미래가치에 퍼펙트 생활가치까지
남악신도시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풍경채
이름다운 풍경이여가-
SINCE 1978 제일건설(주)

건보주택·목포시 상동 869번지

다시 없을 남악의 프리미엄을 누리십시오

- 미래 프리미엄 | 전남도청 등 행정업무의 남악지구와 스포츠 의료 관광의 오후지구 비전
- 교통 프리미엄 | 남악C를 통한 서해안고속도로 빠른 이용, 후광대로, KTX 호남선 등
- 웰빙 프리미엄 | 단지별 체육근린시설, 단지별 남창천 조양, 중앙공원, 오룡산 등
- 생활 프리미엄 | 남악초, 오룡초 및 남악중·고, 이마트(예정), 남악시장, 도림도서관 등

전용 84㎡ A/B/C 총 538세대 문의 1899-2474

시행 KAIT 인력자산신탁 시공 제일건설(주) 위탁 Gyunju

중도금 무이자
확장세대 혜택1
확장세대 혜택2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에 표기된 타입별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수납형 이하는 실면적입니다. *대지위치: 전남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남악지구 남악신도시 A288. *규모: 지하층 지상 10층, 7개동 538세대 *대지면적: 33,274.90㎡ / 연면적: 78,422.7㎡